

# 다국적 농업생물공학 기업 몬산토의 기업활동에 대한 윤리적 분석과 사회적 책임 사례연구\*

이 호 영\*\*  
김 동 현\*\*\*  
이 기 친\*\*\*\*  
정 대 성\*\*\*\*\*

몬산토는 자사의 종자와 화학물 등 농업솔루션 제품을 통해 농업의 생산성을 증진시키고 자원을 보존하며 농업인의 삶을 개선, 미래 인구증가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있는 종합 농업 솔루션 기업이다. 초창기 화학 산업에서부터 현재 농생명공학 산업까지, 이들은 매우 빠른 혁신과 변화를 통해 성공적인 경영 성과를 이룩해왔다. 또한 대외적으로 장학사업, 수자원 보호 활동 등의 사회공헌 활동을 펼침으로써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몬산토는 과거 몇 가지 윤리적 이슈로 인해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화학제품인 폴리염화바이페닐(PCB), 다이옥신,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 등의 제품으로 인해 환경과 인류의 건강을 훼손시킨다는 비판을 받았다. 또한 종자 생산 기업으로서 유전자 조작 종자(GMO)의 안정성 논란, 독점적 지위 유지를 위한 특허권 남용, 허위 광고를 통한 농민들의 손해 유발 등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부정적인 언론의 보도들은 기업의 명성과 윤리성에 대한 일반대중의 우려를 가져와 장기적 성장에 위협이 됨을 인지하여 사회적 공헌 활동 강화에 나서고 있다.

본 연구는 과거 이슈가 되었던 몬산토의 활동을 기업윤리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비윤리경영의 대표 사례로 언론에서 다뤄졌던 몬산토의 영업과 관련된 인도 농민 자살문제와 남미 지역에서의 언론보도 통제 및 조작사례를 기업윤리의 규범적 평가도구인 의무론적 접근, 결과론적 접근 및 덕 윤리적 관점의 접근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4단계 층위분석을 적용해 살펴보았다. 본 사례를 통해서, 기업의 윤리성확보를 위해서는, 해당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지속적 관심과 협력이 필요함을 이해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에 기반을 두어 기업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기업의 내부 및 외부적 대안과 기업문화가 윤리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례문제를 제시한다.

주제어: 몬산토, 경영윤리, 기업의 사회적책임

## 1. 서론

1982년 세계 최초로 식물 유전자 조작에 성공해낸 종자 및 농화학 산업분야의 다국적 대기업이다. 이들은 세계 유전자재조합식품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특허의 90%를 가진 선도적

몬산토는 1901년 미국에서 화학기업으로 시작해

논문접수일: 2016. 01. 31.

1차 수정본 접수일: 2016. 05. 11.

게재확정일: 2016. 05. 26.

\* 본 연구를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조준수, 김예진, 윤하연학생과, 세미나 참석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논문의 티칭노트를 원하는 한국경영학회 회원은 KBR 편집위원회 사무국(kbr2editor@gmail.com)으로 요청하십시오.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hylee@yonsei.ac.kr), 교신저자, 공동저자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과정(gomty5701@naver.com), 공동저자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 학사과정(geechanlee@gmail.com), 공동저자

\*\*\*\*\* 연세대학교 언어정보연구원 HK 연구교수(bochumer@naver.com), 공동저자

회사로서 특허권의 과도한 사용 등으로 비판받았으며, 특허 행사가 제한된 국가에서는 농산물 종자 가격을 크게 올려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sup>1)</sup> 이에 해 몬산토 종자로 생산한 GMO의 안전성에 큰 문제가 제기되어 2014년 5월 24일에는 전 세계적으로 '몬산토에 반대하는 행진(March Against Monsanto)'이 펼쳐지기도 했다(KBS, 2011).

과거 몬산토는 1998년 이후 14개월간 33%에 달하는 주가 폭락을 경험했으며 이는 재판매 목적으로 받아능력을 없애는 기술을 접목한 터미네이터 종자의 특허 출원 시도와 소비자들과의 소통 실패로 촉발되었다. 저작권 보호를 내세운 GMO종자의 자체 번식 능력 삭제라는 몬산토의 기획은 농민들의 종자권 및 식량안보를 골자로 한 반대에 부딪혔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불신을 심어주었으며 결국 이는 GMO 작물에 대한 수많은 규제와 몬산토에 대한 적대감으로 표출된 것이다(Robin, 2010). 한편 이후 몬산토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 장학사업, 관개망 확충 등 다양한 공헌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CSR 활동의 결과로 몬산토는 2014년 기준 전세계대기업 CSR 활동 순위 42위, 아르헨티나에서는 일하기 좋은 기업 3위에 위치하고 있다.

본 연구는 몬산토를 둘러싸고 언론에서 다루어진 몇몇 사례를 이용하여 경영윤리의 핵심 접근방법인 의무론, 결과론 및 덕윤리의 개념들을 적용시켜 분석해 보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이하 CSR) 피라미드 관점에서의 분석과 기업문화 분석을 통해 기업윤리의 주된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의 대상, 내용과 의의를 간단히 기술하는 서론에 이어, 2장에

서는 몬산토의 과거 및 현재와 재무제표 주요 사항을 살펴보고 CSR과 재무성과 상관관계에 대한 선행연구, 몬산토의 윤리경영 이슈 분석을 위한 규정적 분석도구들을 정리한다. 3장에서는 소개한 규정적 도구들을 이용하여 인도와 남미지역에서의 윤리경영 이슈들을 분석한다. 대표적으로 특허권 남용, 허위(과장)광고, 제조물 책임 등을 다룬다. 나아가 4장에서는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몬산토가 다방면으로 실시한 CSR 활동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본 사례를 요약하고 관련된 사례를 재검점한다.

## II. 몬산토 소개와 각 논점에 대한 이론적 배경

### 2.1 몬산토의 과거와 현재

몬산토는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에 본사를 둔 다국적 기업으로, 66개국 404개 시설에 21,035명의 직원을 두고 있다. 주요 제품 영역은 농작물 및 채소 종자, 식물 유전공학 형질, 농작물 보호 화학제품 등이다.<sup>2)</sup> 현재 몬산토는 세계 종자 시장의 27%를 점유하고 있고, 특히 GMO 종자의 경우 그 점유율이 90%에 달한다.

현재와 달리 1901년 설립 당시 몬산토는 화학기업이었다. 초기 몬산토는 사카린과 같은 인공 감미료를 제조했다. 1920년대 몬산토는 기초 산업 화학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여 1940년대에 이르러서는 인조 섬유와 플라스틱 제조 등의 분야를 대표하게 되

1) 가령, 금이 1g당 5만원인 상황에서 시중에 유통되는 파프리카 종자는 1g에 9만원, 토마토 종자가 1g당 12만원을 웃도는 경우도 있으며, 한국 1위와 3위 종자 회사를 몬산토가 인수해 파프리카·청양고추·시금치·토마토 등 70여 개 품목에 대해 '몬산토 코리아'가 종자 판매권을 보유하는 등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KBS, 2011).

2) 구체적인 유통제품군에 대해서는 몬산토 홈페이지 참조(<http://www.monsanto.com/pages/default.aspx>).

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몬산토는 농업 살충제 개발에 주력했다. 몬산토의 주요 제품으로는 2,4,5-T, DDT, Lasso 그리고 에이전트 오렌지 등이 있는데, 특히 에이전트 오렌지는 베트남전에서 사용된 고엽제로 발암 물질로 밝혀졌다. 또한 인체에 노출될 경우 두통, 현기증, 협심증 및 피부질환과 심장질환이나 손발 저림, 운동신경 손상 등의 증상을 유발해<sup>3)</sup> 피해자들과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고, 대규모의 소송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sup>4)5)</sup>

에이전트 오렌지가 미 당국에 의해 금지되고 Lasso가 사회적인 비판에 시달리자 몬산토는 1976년 대체품으로 제조제인 글리포세이트(Glyphosate)를 개발해 상품명 '라운드업(Round up)'으로 출시했다. 라운드업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조제로 몬산토가 세계 최대 제조제 제조 기업으로 발돋움 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했다.

이후 몬산토는 농업생물공학 기업으로의 변신을 시도한다. 변신의 근거는 화학물의 부작용으로 인한 소송비용뿐 아니라 오일쇼크를 목격한 당시 경영진의 전략적인 판단 때문이었다.<sup>6)</sup> 석유의 유한성에 따른 한계를 예상한 경영진은 93년 당시 미국 5위의 종합 화학 기업이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바이오 분야를 집중 육성했다. 이는 기존 제조제의 주성분이 특허권으로 보호받고 있던 라운드업의 특허권 만료 시기가 2000년이라는 점도 있었다. 몬산토는 특허권 만료로 인해 수익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어하기 위해 라운드업에 내성을 지닌 라운드업 레디라는 유전자 변형 종자(GMO) 개발로 두 제품의 시너지를

목표했으며, 이를 1996년에 상용화했다. 이후 90년대 말과 2000년대 초 몬산토는 종자 관련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한편 비관련 사업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재의 종자 기업으로의 조직 개편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몬산토의 전환과정에서 터미네이터 종자의 도입 논의는 이전 화합물의 안정성 논쟁과 더불어 몬산토 주가의 폭락을 야기했다. 그룹의 제품은 전반적인 시장의 보이콧에 시달렸으며, 동시 새로운 사업과 전환을 위한 대규모 차입금의 만기 도래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고 1999년 과마시아에 인수합병 된 뒤 농업 솔루션 부문을 분리하였다.

그러나 인적분할(spin off) 이후 몬산토는 비관련 사업을 매각하고 개발 역량의 집중 및 지속적인 이미지 개선을 통해 시장으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5년간 몬산토는 안정적인 매출액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성장을 이루어냈다.

## 2.2 이론적 배경

### 2.2.1 기업의 CSR 활동과 재무성과의 상관관계

기업의 CSR 활동과 재무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는 주로 세 가지 입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CSR 활동과 재무성과의 관계가 정(+), 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천미림·김창수, 2011). 구체적으로 Porter와 Kramer (2006)의 연구에서 제시된 이해관계자 조정 가설은 기업의

3) Monsanto To Be Sued For Crimes Against Humanity At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Collective- Evolution. Arjun Walia. 2015.12.7.  
<http://www.collective-evolution.com/2015/12/07/monsanto-sued-for-crimes-against-humanity-at-international-criminal-court/>.

4) Monsanto Settles Agent Orange Lawsuit For \$93 Million. Indiana Public Media. Sarah Gordon. 2013.2.1.  
<http://indianapublicmedia.org/earthheats/monsanto-settles-agent-orange-lawsuit-93-mill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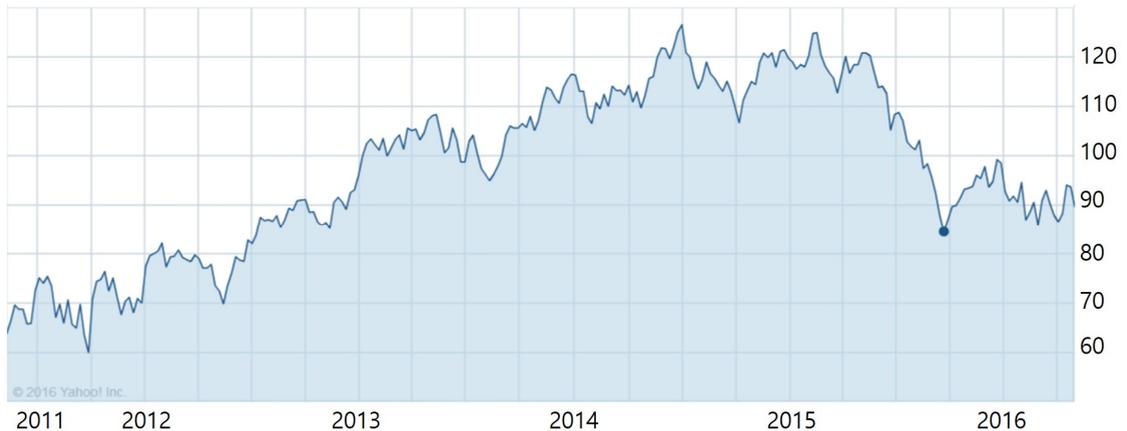
5) Monsanto Sued by Farm Workers Claiming Roundup Caused Their Cancers, Ecowatch, Lorraine Chow, 2015.9.30.  
<http://ecowatch.com/2015/09/30/monsanto-sued-roundup-causes-cancer/>

6) Monsanto's transformation. St.Louis Business Journal. Rick Desloge. 2005.9.4  
<http://www.bizjournals.com/stlouis/stories/2005/09/05/story3.html?page=all>.

〈표 1〉 최근 5개년 몬산토의 재무제표 개괄 (단위: 1,000,000\$)

과목	2010	2011	2012	2013	2014	
재무상태표	당좌자산	1,485	2,874 (94%)	3,585 (25%)	3,922 (9%)	2,407 (-39%)
	채고자산(순)	2,649	2,591 (-2%)	2,839 (10%)	2,947 (4%)	3,597 (23%)
	유동자산	7,050	8,809 (25%)	9,658 (10%)	10,077 (4%)	9,675 (-3%)
	비유동자산(순)	10,802	11,035 (2%)	10,566 (-4%)	10,587	12,306 (14%)
	자산총계	17,852	19,844 (12%)	20,224 (2%)	20,664 (2%)	21,981 (6%)
	유동부채	3,556	4,729 (33%)	4,221 (-11%)	4,336 (3%)	5,112 (18%)
	비유동부채	4,183	3,399 (-19%)	3,967 (17%)	3,600 (-9%)	8,955 (149%)
	부채총계	7,739	8,128 (5%)	8,188	7,936 (-3%)	14,067 (77%)
	자본총계	10,113	11,716 (16%)	12,036 (3%)	12,728 (6%)	7,914 (-38%)
손익계산서	매출액	10,483	11,822 (13%)	13,504 (13%)	14,861 (10%)	15,855 (7%)
	매출원가	5,416	5,743 (4%)	6,455 (12%)	7,208 (12%)	7,281 (1%)
	영업이익	1,603	2,502 (57%)	3,148 (26%)	3,570 (13%)	4,075 (14%)
	당기순이익	1,115	1,659 (48%)	2,093 (26%)	2,525 (21%)	2,762 (9%)

출처: EDGAR, The U.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 )안의 숫자는 전기 대비 증감률.



출처: Yahoo Finance (<http://finance.yahoo.com/q?s=MON>).

〈그림 1〉 최근 5개년 몬산토 주가 동향 (단위: 1,000\$)

CSR 활동이 외부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을 조율하는 기능을 수행하므로, 외부 이해관계들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 재무성과의 개선으로 나타난다는 입장이다. CSR 활동에 사용되는 자원은 일종의 투자라고 간주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근거로는 기업과 사회는 공유된 가치를 추구하고 있으므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기업의 활동은 기업의 가치 역시 향상시킨다는 것이다.

Wright and Ferris(1997)은 CSR과 관련된 비용은 기업의 영업활동과는 무관한 활동에 발생하는 지출로, 오히려 주주의 이익을 감소시키는 대리인비용이라고 주장하였다. CSR활동은 기업의 핵심적인 영업과는 전혀 무관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 경영자들이 이에 관심을 갖는 일 자체가 비효율을 발생시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앞선 두 주장과는 반대로, CSR 활동과 기업의 성과 및 가치에는 아무런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있다.(McWilliams & Siegel, 2000) 이들의 연구는 CSR 활동과 기업의 가치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얻을 수 없으며, 정이나 부의 상관관계를 추정하는 두 가설 모두 실제 설명력과 예측력이 매우 떨어지는 것은 실제 두 변수는 서로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Nelling과 Webb의 2006년 연구에 따르면 CSR 활동의 이익의 변동성(variability)을 관리하는 데는 기여할 수 있다고 보이나, 여전히 기업의 이익과 CSR 활동 사이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찾을 수는 없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입장의 견해들은 이전의 연구들에서 나타난 정, 부의 상관관계는 추정과정에서의 오류일 뿐이며, 분석과정에 대한 보완을 통해 그 착각을 해소할 수 있다고 보았다.

### 2.2.2 기업윤리적 분석도구 소개

기업의 활동을 윤리적으로 평가하는 데 가장 고전적인 방법은 의무론적 입장과 결과론적 입장, 그리고 덕 윤리적 입장을 준용하여 중심 이슈와 핵심적 원칙, 그리고 각 이해관계자가 받게 될 영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각각의 입장은 윤리적 대상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를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서로 상반된 분석결과를 드러내기도 한다. 여기서는 각 입장의 철학적 태도를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의무론이란 도덕적 행위를 특정한 의무, 혹은 명령의 수행이라는 관점에서 고찰하는 윤리이론이다. 이때 의무 혹은 명령을 내리는 자는 신과 같은 외부의 권위자일 수도 있고, 보편성을 산출하는 능력인 내부의 권위자인 이성일 수도 있다. 예컨대 신의 명령인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라는 황금률이나 칸트가 말하는 ‘나의 주관적 행위 원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을 만큼 보편성을 가져야 한다’는 이성의 보편화의 원칙에 따르는 행위가 도덕적이라는 것이다. 보편화의 원칙은 오늘날 과학기술시대의 책임윤리를 말하는 한스 요나스의 주장에서도 행위의 중요한 윤리적 지침으로 작용한다.

이와 별개로 도덕적 행위가 의무나 명령의 수행에 있다면 우리는 그런 행위의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을 것이라는 비판도 따를 수 있다. 어떤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는 그 행위가 자율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전제가 있는데, 의무나 명령의 수행은 자발적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처럼 도덕적 행위는 행위자의 자율성을 전제하는데 반해, 명령이나 의무는 행위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행위자에게 외부에서 주어진 규정을 의미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명령이나 의무의 수행과 도덕적 행위는 서로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된다.<sup>7)</sup>

7) 칸트(2005), “윤리형이상학”, 백종현 (역), 아카넷, 457p 이하 참조.

그런데 칸트는 도덕성의 핵심이 되는 자율성을 아주 정교하게 규정함으로써 자율성에 기초한 도덕적 행위와 명령과 의무의 수행이 결코 대립적이지 않음을, 아니 심지어 자율적인 도덕적 행위는 본질상 명령의 수행에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통상 주관적이고 이기적인 이익에 따라 행위 하려는 경향을 가지며, 그런 점에서 보편성과 호혜성에 둔감한 행위 양식을 자연적으로, 혹은 습관에 의해 장착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이런 경향성과는 대비되는 보편성과 호혜성을 지향하는 이성적 행위, 즉 도덕적 행위는 그런 경향성을 단절하는 명령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성이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경향성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에 순응할 때, 즉 따라야 할 법칙을 스스로 부여할 때 행위 주체는 자율적으로 행동한다.

의무론적 윤리는 (기업이든 개인이든) 행위주체가 행위의 장에서 자신의 이익에 매몰되어 행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보편화의 원칙에 부합하는 특정한 규정(Prescription)들을 마련한다. 예컨대 과거 케네디 대통령의 연방의회 특별교서에 등장하는, 그리고 오늘날 기업의 윤리성을 평가하는데 하나의 기준이 되는 안전할 권리, 알권리, 선택의 권리, 의견청취의 권리 등이 그런 규정에 속한다. 바로 이런 규정들에 근거하여 기업들의 행위의 장인 시장에서의 문산토의 행위를 의무론적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결과론은 도덕적 행위를 행위결과가 어느 정도나 선/행복에 기여하는가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윤리이론이다. 결과론의 대표적 윤리이론인 공리주의에 따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멀리 하려는 그런 자연성으로 장착된 생명체이다(센델, 2010, p. 55). 벤담은 쾌락과 고통이 인간을 지배하는 두 감정이라고 하면서 이런 자연적 감정과 대비되는, 이성이나 당위에 기초한 특정한 도덕적 가치, 예컨대 자유나 인간성과 같은 가치를 도

덕적 행위의 출발이나 목적으로 삼는 것에 대해 강한 반감을 드러낸다. 그런 점에서 공리주의는 의무론적 윤리의 반대편에 있는 것으로 상정할 수 있다.

결과론이라는 말에서 드러나듯이 결과론적 윤리학은 행위의 결과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에 도덕적 행위의 성패가 달려 있다. 말하자면 행위자(개인, 기업 혹은 국가)는 행위 이전에 비용편익을 분석하여 자신에 가장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비용편익분석은 가치들의 질적 특성을 무시하고 모두 하나의 단일화폐로 측정할 수 있다는, 즉 가치들을 모두 계량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포한다(센델, 2010, p. 63쪽 이하). 따라서 결과로서 가지게 되는 행위자의 쾌락의 질적 차이를 그렇게 모두 계량화할 수 있는지는 언제나 논란의 대상이 된다. 예컨대 쾌락의 강도가 큰 저급문화의 향유가 쾌락의 강도가 약한 고급문화의 향유와 비교될 수 있는 것인지, 즉 이 두 문화향유를 같은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지는 항상 비판의 초점이 된다. 그리고 이에 못지않은 중요한 문제는 행위자가 행위 이전에 비용편익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있는지, 단기간의 이익을 위해 결국에는 기업의 존립을 걱정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수립하지는 않는지 등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덕 윤리적 관점에 대해 살펴보자. 의무론적 분석이나 결과론적 분석은 기업의 활동과 연관하여 볼 때 예컨대 시장에서 행위자의 행위가 어떠한 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따라서 기업의 행위를 판단하는 방식에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장에서의 행위 자체를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없다. 시장에 등장한 모든 것은 상품으로 되며, 따라서 단일한 가치기준인 화폐로 환원이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교환가능하다. 하지만 덕 윤리는 시장이나 경제적 상호작용의 영역으로 환원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다. 말하자면 덕 윤리는 경제적 가치로 환원할 수 없는 가치에 대한 존

중을 강조한다(셸넬, 2010, p. 315쪽 이하). 인간(존엄)성, 자유, 평등, 건강, 생명, 시민의 의무 등이 그런 가치들에 속한다. 이러한 가치들을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의 정치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귀속성과 일체성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업활동에서 삶의 모든 것을 경제적 행위 영역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인간의 삶의 중요한 요소들을 물화, 내지 경제화시키지는 않는가의 관점에서 몬산토의 기업활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20여 년간 GMO 기업으로서의 변신을 강력하게 추진해 온 다국적 기업 몬산토는 몇몇 국가에서 환경파괴, 지적재산권 침해 및 과도한 특허권 보장, 뇌물 공여 등으로 부정적 평가를 받은 바 있다. 부정적 평가가 활발하게 이뤄진 인도와 아르헨티나에서의 사례들을 분석할 것이며, 이런 부정적 평가를 불식시키기 위한 몬산토의 CSR활동이 어느 정도나 기업이미지를 바꿀 수 있었는지 등을 살필 것이다. 몬산토의 역사와 그 발전방향을 볼 때 그 구성원들이 기업의 이윤이라는 절대적 목표 앞에서 이러한 부정적 평가를 완전히 불식할 수 있는 행위나 반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 III. 인도와 남미에서의 비윤리경영 이슈

#### 3.1 BT면화 과대광고와 인도 농민 자살사례

##### 3.1.1 BT(Bacillus Thuringiensis)면화와 자살률의 관련성

인도에서 에코페미니스트 활동으로 명성을 얻은 반다나 시바(Vandana Shiva)는 2006년 12월 미

국 Pacifica Radio의 보도 프로그램 Democracy Now와의 인터뷰에서 몬산토는 독이 든 종자를 팔고 있다고 주장했다. Shiva는 유전자 조작의 위험성과 유기농업의 우수성을 강조하며, 최근 20여 년간 20만 명이 넘는 인도 농민들의 자살의 원인으로 몬산토가 유통하는 BT면화를 지목했다. 이러한 사태의 원인은 몬산토의 광고에 속아 넘어간 농민들이 BT면화 재배를 위한 종자 사용권, 농약, 관개시설 확충의 높은 비용으로 부채를 떠안게 되고 한 번 재배한 면화에서 새로 거둔 종자는 다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기술사용동의서'에 의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09년 한 해 자살한 인도 농민의 수는 17,638명, 약 30분마다 한 명의 농민들이 자살했다.<sup>8)</sup> 이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을 보이는 지역은 3,141명의 농민이 자살한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2,585명의 카르나타카(Karnataka), 2,525명의 안드라프라데시(Andhra Pradesh), 1,237명의 마디아 프라데시(Madhya Pradesh), 1,126명의 차티스가르(Chattisgarh) 주이며 인도 중부의 면화 벨트(Cotton belt) 지역이다. 자살이 급증한 시기 역시 BT면화종자가 도입된 2002년 이후였고 특히 고리대금업자가 부채 수령을 위해 농가를 방문하는 봄철에 농민 자살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문제의 대상인 BT면화는 유전자조작 면화 종자로 면화 솜벌레를 자가 방제할 수 있는 BT박테리아를 스스로 생산해 살충제 사용의 감소와 생산량 증대를 유발할 목적으로 2002년 인도에 도입되었다. 면화는 미국 토양환경 기준으로 만들어져 자국에서는 실제 생산량 증가를 보였으나 인도에서의 생산량은 기대치를 채우지 못했다.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는 BT면화의 특성 탓에 인도 농민들은 관개 시설 확충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BT박테리아에 인도 솜벌레

8) Monsanto's GMO Seeds Contributing to Farmer Suicides Every 30 Minutes. Natural Society. Anthony Gucciardi. 2012.4.4.

들이 단기간에 적응해 더 독하고 많은 양의 살충제가 요구되었다. 무엇보다도 BT면화 종자는 특허권 때문에 재래종보다 3배가 비쌌고 매년 종자를 새로 구입해야하므로 과도한 비용 투자를 초래했다. 이로 인해 <그림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BT면화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2005년부터 2011년 동안 2% 증가한 생산량에 의한 이윤에 비해 생산 비용이 과다하게 증가하여 농민들은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Samiti,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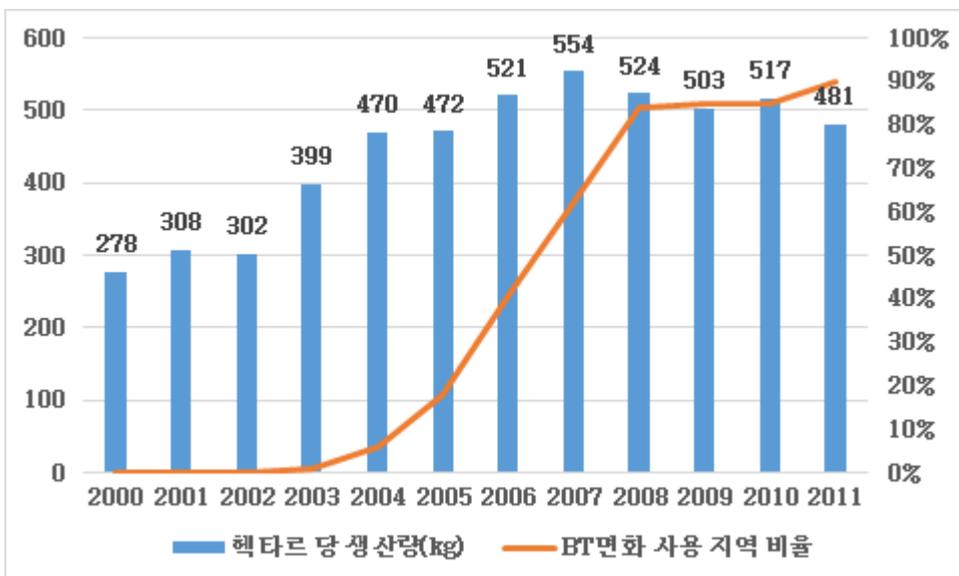
### 3.1.2 인도 비윤리경영 이슈별 분석

#### 3.1.2.1 허위광고

몬산토는 인도에서 BT면화의 독점적 판매 사이클을 형성하기 위해 생산성에 대한 과장과 부적합한 광고 방식 제도를 악용한 신화 조장 등을 비판받았다. 우선 몬산토는 BT면화가 해충을 자체적으로 죽이는 독소를 품고 있기에 농약이 필요 없어 수익 향

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언론 홍보를 하루에 100회 이상 내보냈다. 하지만 Kathage and Qaim (2012)의 연구에 따르면 BT면화의 생산성은 토종면화와 비슷한 수준이며 오히려 BT면화에 내성이 생긴 해충을 죽이기 위한 살충제 구입비용까지 부담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또한 인도 BT면화의 생산량이 2006년부터 3년간 약 40% 감소했고 이는 인도 면화 산업 사상 최초로 발생한 최대 규모 감소이며 특히 마하라슈트라(Maharashtra) 지역의 4백만 헥타르에서는 BT면화 생산량이 350만 키타에서 220만 키타로 줄어 2천억 루피 이상의 손해를 야기했다고 보고했다.

몬산토의 비윤리적 행태로 비난받았던 광고 방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몇몇 농부들을 동의 없이 모델로 사용했고, 또는 사실 농부가 아닌 이들을 BT면화 덕분에 성공한 자들로 내세웠다. 이들은 'True stories of farmers who have sown BT cotton'이라는 제목으로 실제 광고되었다(Organic



출처: Vidarbha Janandolan Samiti (2011).

<그림 2> BT면화로 인한 생산량 변화

Consumer Association, OCA, 2008). 또한 몬산토는 각 농촌 지역의 지배적 카스트와 부농을 BT면화 시범 농가로 지정하는 등 인도의 특이한 신분 제도를 이용해 농민들이 BT면화를 구입하도록 종용했다. 그들은 이미 관개 시설이 잘 갖춰진 부농 가운데에서도 학력이 높고 현금 작물 재배 경험이 풍부한 지배적 카스트로 시범 농가를 물색하였다. 그 결과 제도적, 사회적으로 권력이 있는 농가들이 BT면화 시범 농가로 선택되었고 이들의 사회적 계층으로 인해 BT면화 종자가 우수하다는 메시지는 더욱 효과적이고 암묵적으로 전달되었다(Majumdar, 2006). 이러한 일련의 활동과 일반 농가보다 우수한 기술과 인프라를 지닌 일부 농가의 사례전파로 인해 일반 농민들의 BT면화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가 조장된 것이다.

### 3.1.2.2 특허권

인도 농민들은 몬산토의 '특허권'에 대해 매년 종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몬산토는 1988년 인도의 최대 종자 기업이었던 MAHYCO(Maharashtra Hybrid Seeds Company Ltd)의 지분 26%를 구입하였으며 1999년에 2대 종자 기업인 E.I.D Parry Seeds의 지분 51%를 구입해 인도 종자 회사를 장악했다. 또한 몬산토는 2002년 인도 농업 시장에 BT면화 종자를 시판하며 독점적 종자 공급원이 되었고 인도 식물신품종 특허를 받아내 농민들에게 기술사용 동의서 서명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이로 인해 농민들은 지적재산권 명분으로 매년 새로운 종자를 구입해야 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독점적 BT면화 구입 구조에서 체무를 지게 된 것이다.

몬산토의 생명공학 매니저인 크레이그 에반스(Craig Evans)는 1999년 캐나다에서 촉발된 GM(Genetically Modified) 특허 분쟁에 관한 인터뷰에서 "특허로 얻은 유전자는 몬산토의 재산이기에 사용을 원한다면 기술동의서가 필요한 것이다."라며

회사가 특허를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렇게 몬산토는 생명체에 유전자를 1개 추가하는 것이 마치 컴퓨터에 프로그램을 하나 추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농부들은 특성 하나를 더할 때마다 추가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수익구조에 종속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같은 경우 한 번 사면 영속적 소유권을 가지는 것과 달리 종자권은 농부가 매해 구매해야 한다는 점, 농촌 수입구조와 직결된다는 점, 매해 구매하지 못할 경우 막대한 소송비용과 피해보상금을 지불해야한다는 점에서 과도한 특허권이 보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 3.2 남미지역 제조물 안전 책임과 지역 반발 사례

### 3.2.1 남미 지역에서의 종자 플랜트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요구와 몬산토에 대한 보이콧

2014년 1월 9일 아르헨티나 법원은 자국 북부에서 진행되던 몬산토 종자 플랜트의 건설 중단을 명령하며 공장 유치 여부를 환경영향 평가에 따른다며 유예시킨다고 결정했다. 이는 AP통신의 조사가 몬산토 제품과 제품 유통 지역 내 기형아 출산율 및 암 발병률 급증과의 상관관계를 지적함으로써 생긴 국민들의 적대적인 인식을 반영한 결과였다(Reuters, 2013).

반(反) 몬산토 정서는 아르헨티나뿐만 아니라 베네수엘라, 볼리비아, 에콰도르 등 남미 대륙 각지에서 몬산토 공장 설립 반대와 제품 보이콧의 형태로 나타났다. 문제의 중심은 몬산토의 GMO종자와 화학물에 대한 제조 책임이다. 아르헨티나에서 발생한 몬산토와 관련된 판결과 관련된 논점들은 윤리경영 실패의 사례와 극복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몬산토의 아르헨티나 진출은 1990년 말 시작되었으며 곧바로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구축되었다. 이 과정에서 아르헨티나는 약 10년 만에 GMO 대두의

주요 수출국이 될 정도로 농업 구조의 큰 변화를 겪었다. 다중 작물을 기르던 기존 농민들의 집약적 농업으로 인한 토양의 척박화를 생산성이 높은 GMO 작물과 몬산토의 대규모 자본으로 극복해 낼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아르헨티나 경제 상황과 농민들에게 큰 이익을 선사했으나 그 반작용으로 연간 농업 화학물 살포량은 전에 비해 9배 급증한 8천 4백만 갤런에 육박하는 수준이 되었다. 또 대용량 화학물을 살포하는 과정에서 비행기를 이용한 공중 살포 방식을 택하면서 식용수 및 주거단지가 화학물로 오염되는 문제도 유발되었다(Pisarenko, 2013)

대표적 화학물인 글리포세이트에 대해 몬산토는 “생물 분해성”을 주장하며 소량의 노출은 인체에 무해하다며 이미 미국 연구기관과 FDA를 통해 그 안전성을 검증받은 사안이라는 근거와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sup>9)</sup> 그러나 아르헨티나의 저명한 분자생물학자 안드레 카라스코(Andres Carrasco) 박사는 화학물에 대한 극소량 노출로도 태아의 형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며 화학물이 암세포를 발병시키는 세포 변형에도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Paganelli, et al. 2010). 또한 글리포세이트의 분해율 역시 몬산토가 발표한 자료에 크게 미치지 못해 토양과 작물에서 과다 검출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지적들로 인해 몬산토 화학물을 빈번히 사용하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농민과 어린이들의 희귀병 감염 증가를 몬산토 제품과 연관하는 경향이 증폭되고 있는 추세이다(Samsel & Seneff. 2013).

몬산토가 제조물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된 문제였다. 몬산토는 DDT, 에이전트 오렌지, rBGH 등의 화학물들로 베트남전, 축산농가 등 많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꾸준히 기소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몬산토는 구체적인 해명과 인식 개선보

다는 법정에서의 재판을 선호해 왔다. 왜곡되기 쉽고 양상을 통제하기 힘든 외부 언론을 통한 해명보다 공신력이 보장되고 결과 또한 확정적인 재판을 통한 분쟁 해결을 선호한 것이다.<sup>10)</sup> 이러한 방안은 단기적으로 용이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몬산토는 비판에 대한 대응으로 아직까지도 주로 소송을 택하고 있으며 자사의 GMO종자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들의 제조물에 불리한 연구결과를 내놓는 연구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의혹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 사건은 1998년 아마드 푸스타이 박사의 로웨트 연구소 퇴출 사건이다. 그는 유전자 조작 감자를 섭취한 동물의 발육부진 및 면역력 약화 현상을 보고한 후, 실험과정에 대한 근본적 의혹과 이로 인한 연구원 자격 상실을 받아들여야 했다. 6건의 동료 평가까지 거친 논문 등재에 이 정도 가혹한 조치가 취해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Butler. 2012)

2011년 난징대학에서는 유전자 조작 쌀의 유전구조가 섭취한 개체의 체내에 잔류하여 해당 개체의 정상적 작용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를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단일구조 RNA는 소화과정상에서 파괴되어 사라지므로 이를 이용한 GMO 기술은 무해하다는 기존 학설을 반박한 것이다(Lin Zhang, et al. 2012). 이는 직접적으로 몬산토가 유통하는 유전자 변형 종자와 식품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존 안전성 평가 방식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몬산토는 제휴 연구기관을 통해 채 1년도 걸리지 않아 실험결과와 반대되는 논문을 발표한다. 이들은 난징대학의 연구 중 유전자 서열 분석과정에서 발생한 오류가 실험의 공신력을 해하고 있으며, 식물의 RNA가 섭취한 개체의 체내에 잔존함

9) 몬산토 공식 홈페이지 Viewpoint 섹션 Product and food safety 이하 참고.

10) 몬산토 공식 홈페이지 Spotlight 이하 참고.

매우 희귀하다는 주장을 내세웠다(Yuanji Zhang, et al. 2012). 그러나 이들의 발표는 학술연구를 통한 반례의 입증이 아니라 몬산토의 이익을 위한 감정적 호소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난징대학의 연구를 제대로 검토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짧은 시간 만에 발표된 문헌이며, 직접적으로 단일 RNA에 대한 반박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또한 2012년 9월에는 GMO 식품의 안정성에 회의론을 제기하는 논문에 대한 이례적 비난에 더해 직접적 철회 압력이 가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중심 대상이 된 논문은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지에 게재된 Gilles-Eric Seralini(2012)의 연구로, 몬산토의 제초제 내성 처리가 된 옥수수를 2년간 섭취한 생쥐의 수명 단축과 사망률의 증가, 중추신경계 이상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해당 논문은 유의미한 표본을 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유효성이 의심되고 있다는 점은 인지해야 하지만, 문제는 저널의 게재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원색적인 비난에 더해 논문 채택 철회 압력을 요구하는 서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다. 이에 참여한 학자들 대부분이 몬산토의 장학금 수혜자나 연구기금의 대상자인 등 유전공학 학계가 사실상 몬산토를 위한 이익집단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퍼지고 있다(Butler, 2012)

### 3.3 이슈에 대한 규범적 접근

#### 3.3.1 인도 이슈에 대한 분석

##### 3.3.1.1 의무론적 분석

의무론적 분석은 살펴보았듯이 시장에서의 이윤창출은 타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이어서는 안되며, 보편적으로 용인된 특정한 의무들을 수행해야

한다는 견지에서 출발한다. 국제기구나 국가, 혹은 시민사회 등은 기업이 이윤창출의 한계 상황으로서 의무로 수행해야 할 특정한 가치들을 ‘소비자 권리’의 이름으로 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케네디 대통령은 1962년 연방의회에 특별교서를 보내 ‘안전할 권리’, ‘알 권리’, ‘선택할 권리’, ‘의견을 반영할 권리’ 등을 소비자 4대 권리로 제시한 바 있으며,<sup>11)</sup> 1975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소비자보호와 정보에 관한 기본 계획에서 소비자의 5대 권리를 선언했고, 1980년에는 세계 소비자 단체들의 협의기구인 국제소비자연맹(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Consumers Unions)도 소비자의 7대 권리를 선언했으며 우리나라는 소비자기본법을 통해 소비자의 8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sup>12)</sup> 우리는 이 글에서 예컨대 안전할 권리의 관점에서 몬산토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안전할 권리’는 모든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한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가는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위해상품을 수거·파기할 의무가 있다. 안전할 권리는 기업행위가 안전을 보장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불확실할 때 특히 요구되는 권리에 해당한다. 유전자 변형 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오랜 시간, 심지어 세대를 두고 관찰해야 알 수 있다. 또한 그 방식 자체가 오랜 진화의 결과로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생명체의 유전자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전자조작 기술은 과도할 정도로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생태윤리학자인 한스 요나스는 저서 <책임의 원칙>에서 유전자 조작과 같은 기술은 생명체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술의 사용을 진보적 관점이 아니라 보수적 관점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책임의 윤

11) John F. Kennedy Presidential Library and Museum. Consumer Bill of Rights. Special message to Congress on protecting consumer interest, 1962.3.15., <http://www.jfklibrary.org/Asset-Viewer/Archives/JFKPOF-037-028.aspx>.  
 12) 법률 제 10678호 시행 2011.8.20. 소비자기본법 제 2장 4조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리'를 말한다.<sup>13)</sup>

유전자 변형식물을 주산업으로 하는 몬산토는 이윤의 문제 이전에 이 문제를 소비자 권리보호라는 의무의 이행의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지만 몬산토는 허위광고와 논문조작 등을 통해 GMO에 대한 소비자의 정확한 판단능력을 방해하는 작업을 해왔다. 그리고 GMO에 의한 직접적 결과가 아직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부정적 측면을 무시하는 행태를 취해 왔다. 2013년 5월 전 세계 52개국 436개 도시에서 약 200만 명이 참여하는 몬산토의 유전자변형작물 생산 반대집회를 개최하였는데, 이런 부정적 여론 덕분에 유럽연합에서는 GMO식품에 라벨을 붙이도록 법제화 되었지만,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아직도 이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기업 간, 기업-소비자간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정부가 조성하는 이유는 가격의 자동조절기능을 최대한 발휘시켜 기업가의 창의와 합리적인 경영을 유도하고, 소비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더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시민법의 원리에 따른 형식적인 자유나 평등이 초래하는 실질적인 부자유와 불평등을 제거함으로써 독점적 지위의 남용에 의하여 경제적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경제적 종속관계를 시정해야 할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sup>14)</sup> 그리고 정부의 의도에 따라 기업은 이러한 행위에 일조해야 할 의무를 부여받는다. 그것이 정부가 기업에게 기업을 할 수 있는 권리와 환경을 제공하는 이유다. 따라서 기업은 정부와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독점적 지위를 소비자에게 남용하거나, 시장지배력을 이윤창출에 국한해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 미루어 볼 때 미국 정부의 특허권 보장으로 몬산토가 부여받은 권리 역시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 기업의 의무이고, 또한 기술사용동의서와 라이선스계약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시키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기업은 이윤창출을 통한 주주가치 증대 및 법 준수와 같은 경제·법률적 영역을 넘어서 주주뿐만 아니라 소비자, 지역사회와 같은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더 나아가 사회전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이며 책임감 있고 윤리적인 방식으로 전개하는 다양한 사회·환경 이니셔티브 등의 사회적 책임을 진다. 기업의 의무는 기업의 본질적 역할인 이윤창출, 이윤창출을 통한 고용 창출, 소비 진작, 납세를 통해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머물지 않고 '법 준수'이외에 다른 윤리적 책임, 인도적 책임의 의무가 주어진다(이형준·서영진, 2004).

이에 따라 몬산토 역시 사회적 책임을 부여받는다. 몬산토는 미국의 강력한 정치적 지원 아래 성장한 기업이고, 현재 유전자조작 생명이라는 법원의 관대한 특허권의 등록 결정으로 미국 법망의 강력한 보호를 받아 성장했다. 그러므로 몬산토는 소비자의 식품과 나아가 건강권까지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기업으로서 바른 식품을 생산하고 이를 위해 농업이라는 산업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몬산토의 특허권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현재 독점구조, 시장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농업 산업을 저해한다는 지탄을 받았다.

Carroll(1991)에 의하면 사회로부터 성장의 책임을 부여받은 기업은 구체적으로 경제적, 법률적, 윤리적, 자선적 책임을 부여받는다. 몬산토는 이미 유전자 조작 작물의 종자-제조제 판매와 독점으로 인하여 사회 내에 경제적인 이익 창출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리고 법률적 책임에 있어서는 몬산토는 오히려 법적 권리를 이용하여 특허권을 보장받고 이를 농부의 기본권과 맞바꿈으로서 기업의 경제적 이

13) 한스, 요나스(1994), "책임의 원칙", 이진우 (역), 서광사, 40쪽 이하.

14) 공정거래위원회 설립 목적과 기능 참고, <http://www.ftc.go.kr/ftcinfo/ftcinfo/target.jsp>

익 창출에 집중해 왔다. 그러나 이렇게 달성된 경제적인 이익은 소비자를 경제적 약자로 종속시킴으로써 창출된 이익이며 범망을 교묘히 이용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다(Harris, 2013). 또한 법으로 규정하지는 못하지만 기업에게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행동과 윤리로서의 윤리적 책임과 자선적 책임을 지켰다고 말하긴 힘들 것이다.

### 3.3.1.2 결론론적 분석

인도에서의 사례들은 동시에 결론론적으로도 비판받을 수 있다. 결론론적 분석은 살펴보았듯이, 행위의 결과가 선에 어느 정도나 긍정적으로 기여 했는지를 측정한다. GMO식물이 장기간에 걸쳐 환경에 노출되어 심각한 생태적, 인체적 변형과 장애를 초래한다면 결과적으로 몬산토라는 회사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을 것이다. 최근 발생한 독일 자동차 회사 폴크스바겐의 비윤리 사례는 이윤만을 추구하는 기업이 어떻게 위기에 빠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결론론적 분석은 기업이 행위 이전에 비용편익을 잘 분석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런데 오늘날 비용편익분석에서 빼놓지 말아야 하는 항목은 소비자의 신뢰도이다. SNS의 발달로 소비자들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에 이 항목은 갈수록 더 중요해 지고 있으며, 따라서 이 항목에 어느 정도의 가중치를 둘 것인지는 기업의 윤리의식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과거에는 기업의 일방적 독주, 내지는 기업과 개별소비자 간의 '작은' 접촉이 주를 이뤘다면, 현대는 기업과 소비자 집단 간의, 그것도 크게는 전 세계에 분포한 소비자 집단 간의 '큰' 접촉이 주를 이루어 가고 있다. 이 말은 소비자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또 밀도가 아주 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오늘날 소비자들의 의식이 향상되며 점차 기업에 높은 수준의이윤리성을 기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윤리적

기업을 기대하는 소비자들의 기대에 맞게 정책을 수립하는 것,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업생존을 위한 전략이 일부가 된 것이다.

기업의 이해관계자는 통상 소비자, 협력업체, 시민단체, 하도급업체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다(이형준·서영진, 2004). 농부는 몬산토의 직접적 소비자이면서 2차 소비자인 개인을 연결해주는 유통 기능도 수행하므로 이들의 신뢰와 기반을 닦는 것이 중요하다. 기업이 부적절한 행위를 보이면 소비자, 투자자, 근로자, 시민단체, 환경단체들은 단순한 법규 준수를 벗어나는 적극적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해왔다.

몬산토의 광고에 허위광고가 있어 왔다는 사실을 지적했었다. 소비자들이 그 광고를 광범위하게 허위광고로 인식하게 될 경우 재 구매를 망설일 것은 자명하다. 소비자들은 또한 몬산토의 제품, 생산과정 및 서비스를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하는 다른 재화의 구매 선택을 통하여 적절한 개별 규제를 시행할 것이다. 더 나아가 소비자운동단체들이 캠페인, 시위, 불매운동과 같은 적극적 방법으로 기업들에게 자신만의 규제를 시행하는 것을 몬산토도 여러 지역에서 경험하였다. 이렇듯 몬산토의 비윤리적 행위가 계속된다면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라는 무형자산에 타격을 입을 것이며, 또 종자를 구매할 잠재적 소비자 집단을 제거하게 될 것이다.

몬산토가 자사 비전을 통해 추구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공감할만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농산물 산업은 그 어느 산업보다 소비자의 신뢰가 중요하기에 기업 이미지를 설정할 때 독점적 착취라는 이미지를 피해야 한다. 때문에 결과적으로 몬산토가 사회적 이미지의 손실로 소비자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농산물기업이 되기보다는 사업의 근간이 되는 농부와의 거래, 즉 작농의 영역에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얻는 것이 결론론적으로도 중요하다.

### 3.3.1.3 덕 윤리적 분석

덕 윤리적 측면에서도 몬산토의 행위를 비판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덕 윤리는 시장의 질서로 편입되어서는 안 되는 가치들, 즉 경제화해서는 안 되는 가치들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갖는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모든 것이 상품으로 환원되고, 그런 점에서 모든 물건과 용역의 가치가 가격이라는 경제적 척도에 따라 평가된다. 하지만 생명, 인간의 존엄이나 자유 등과 같은 가치는 그런 거래의 대상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 충족에 만족할 수 없는 정신적 존재라는 것이 그 배경에 놓여 있다.

생명을 조작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경제적 이윤창출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는 이유에서 생명에 대한 유전자조작 등을 광범위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은 목소리는 생명을 조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 또는 생명조작을 감당할만한 윤리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서도 말한 2013년 5월 개최된 시위에서 시위자들이 요구한 것 중 하나는 유전자변형작물의 생산중단이였다. 이러한 요구에는 실용성과 이윤이라는 관점에서 생명을 인간이 마음대로 조작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담겨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유전자 조작을 통한 대량작물재배를 목표로 하는 몬산토라는 기업의 존립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기 때문에 몬산토 입장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몬산토가 생명의 본질적 특성인 증식의 기능을 종자에서 제거함으로써 생명을 그 본질에서 통제할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종자를 매년 새롭게 구입하게 함으로 농민들을 철저히 자사에 종속시킨다는 사실은 그와는 다른 차원의 현실적 문제이다. 이러한 행위는 독점을 통한 이윤창출이라는 반시장적 행위일 뿐 아니라 생명존중이라는 윤리적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생명에 대한 존중은 그 결과가 어떻게 유익을 주느냐의 문제가 아니

라 그저 생명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간 이성의 요청을 표현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요청에 답하지 않을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생명의 보편적 조작가능성과 생명경시로 이어질 수 있다. 한스 요나스(1994, p.56)가 현대의 과학기술이 거대한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가진 과학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 이유는 이러한 요청의 무시가 인간 자신 뿐 아니라 지상의 생명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 3.3.2 남미 지역 GMO 농작물 사례 기업윤리적 접근

아르헨티나의 판결에서 환경영향 평가를 명시했듯이, 몬산토는 제조물 책임에 대한 소비자 안전 보장 및 윤리적 실천을 요구받고 있다. 결국 이 사건에서 충돌하고 있는 가치들은 소비자의 안전할 권리, 과학의 가치중립에 대한 존중, 생산자 책임 등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 3.3.2.1 의무론적 분석

먼저 의무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기업이 고객의 모든 상황을 예측해서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소비자 권리에 따르면 판매 후 고객들이 상품의 결함으로 겪게 될 불편이나 손해는 보상되어야 한다. 그리고 몬산토 제품의 특성상 일반적인 상해보험이나 보상보험의 범위로는 대처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 안전성 평가에서 특별히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몬산토는 수많은 소송에도 불구하고 자사 제품을 리콜 혹은 재검증하지 않고 반복해서 외부 인증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소비자 권리보호라는 기업의 의무를 가볍게 여기는 행태이다.

이에 더불어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정보의 독점은 소비자들이 상품을 통해 누릴 수 있는 효용과 부

담해야 할 위험을 고지할 의무의 위반이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최종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정보 고지는 정직이라는 보편화 가능한 도덕법칙에 합치할 수 있는데, GMO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주주의 수익추구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그 정보를 내부에서 독점하고 안전성에 대한 연구 자체를 봉쇄한다면, 이는 소비자의 보편적 알 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상품 판매 후 책임에 대한 회피와 안전성에 대한 검증의 거부가 보편적 법칙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런 것이 보편법칙이 된다면 상호신뢰와 투명하고 공정한 정보에 의존하는 시장경제시스템이 무너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시장경제 성립 자체를 위협하는 것으로서, 보편적 법칙에 충실하기 위해 몬산토는 안전성에 대한 책임과 검증 연구를 수용할 의무가 있다.

### 3.3.2.2 결과론적 분석

GMO 농작물 문제는 결과론적으로도 분석될 수 있다. 몬산토의 농업 화학물·유전자 변형 작물의 직접적 이해당사자는 미래세대의 전체 인류로까지 넓어진다. 몬산토의 사업 분야인 식량생산은 미래 인류의 건강과 식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몬산토의 결과론적, 공리주의적 분석은 장기적인 관점을 취할 필요가 있다. 몬산토의 경우 장기적 예측을 필요로 하는 상품들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비용편익을 계산할 경우 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줄 요인들을 놓칠 수 있다. 몬산토의 무분별한 라운드업 살포와 GMO 판매는 크기나 항목 비교를 통한 단언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판단할 때 전체 사회의 순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문제는 특히 안정성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들의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몬산토 임직원들의 관점에서 보자. 이들이 안전성 문제에 대한 부정과 판매 후 책임에 대한 회피를 계속한다면 리콜, 개발 상품에 대한 검증 비용

등의 절약을 통해 단기간의 성장세나 GMO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안전성에 대한 논란은 지속될 것이며, 화학물과 GMO 부작용으로 인한 소송과 수입을 금지하는 정부들이 늘어감에 따른 수요의 감소 위험을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브랜드 이미지나 안전성과 밀접히 연관된 GMO 및 농업 솔루션 부문의 매출, 혹은 기업의 존폐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 지분을 보유하는 주주들은 경영성과에 따라 주가와 배당을 통해 영향을 받게 되므로 그들이 부담하는 비용과 얻는 편익 역시 임직원과 유사한 형태를 가진다.

농업인들은 단기적으로 몬산토 제품을 통한 현재의 확대된 생산성을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화학물에 직접 노출되는 만큼 수많은 생물학적 부작용과 더불어 농토와 생산품 자체를 망쳐버릴 위험이 있다. 장기적으로 GMO와 화학물의 부작용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기존 몬산토의 제품을 이용해온 농토와 환경을 정화하는 것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생물학적이고 경제적인 위험 모두를 떠안는 셈이다. 최종소비자들의 경우 농업인들의 생산성 향상에서 비롯된 안정적인 곡물가격을 누릴 수 있으나 라운드업 레디에서 지적된 화학물, 변형 유전자의 불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해당 곡물들은 사료로서 육우 목축 등에도 사용되므로 최종 포식자인 인간에게 과도한 화학물 및 변형유전자의 축적으로 이어져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몬산토의 화학물과 GMO 식품의 수입을 허가하고 있는 각국의 농업당국 및 규제기관역시, 몬산토의 비윤리적 경영으로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감내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식품에 관련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은 그들에 대한 신뢰성과 긍정적 여론을 형성하는데 필수적이다. 몬산토가 윤리적 논란이 있는 영업 행태를 계속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WTO 혹은 거래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마찰을 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 기업의 명성이 훼손되고 이해관계자 집단들과의 분쟁이 야기될 것이다. 반면, 몬산토의 경영진 스스로가 제품의 안전성에 사후 책임을 다한다면 단기적으로는 국제적 무역 마찰을 피하는 동시에 신뢰성의 제고를 통한 장기적 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사 제품에 대한 정보 독점(GMO 표시제한 완화)과 검증연구 거부 역시 장기적으로는 순 비용을 증대시킬 것이다. 즉, 단기적으로는 임직원들과 주주들은 본격적인 생물학적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까지 최상위 기업으로서의 성과와 GMO분야 내 독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지속적인 피해보상 소송과 정보공개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 내의 거대 언론사는 대부분 몬산토에 호의적인 보도를 내보내고 있지만, 국외에서의 종자 플랜트 보이콧과 거대 규모의 행진 시위는 단순히 몇몇 거대 언론사만으로 전 세계의 정보교환을 장악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반증한다. 단기간 내에는 GMO시장에 먼저 뛰어든 독점적 구조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겠으나, 경쟁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제품들에 대한 검증연구로 인정을 받게 된다면 현재 몬산토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곧바로 소멸될 것이다.

최종소비자와 농업인들은 몬산토의 화학물/GMO 정보 독점과 검증연구의 거부에 의해 상품의 알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단순히 “안전하다”는 말의 반복만으로는 시장에 신뢰성을 줄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유통과정에서 GMO 식품의 표시제한을 완화하려는 로비는 2차 가공품에도 적용되어 소비자 전체를 생물학적 위협에 노출시킬 수 있다.

GMO 식품의 표시제한은 각국의 규제당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표시제한의 과정이 규제기관들의 검/인증 혹은 납득이 아니라 로비로 이루어지고 있

다 의심과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가 없는 표시제한 완화는 규제기관의 실효성과 기능 자체를 의심하게 만들 수 있으며, 몬산토의 정보 독점과 자사 상품 유통을 위한 로비는 본질적으로 규제기관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이 모든 내용을 고려했을 시,功利주의(utilitarianism)의 관점인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몬산토의 대안은 자사 제품을 소비하게 되는 소비자의 안전성을 최우선 고려하고, 관련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 있다.

### 3.3.2.3 덕 윤리적 분석

마지막으로 덕 윤리적 측면에서 몬산토의 행위를 비판할 수 있다. 시장의 질서로 편입되어서는 안 되는, 즉 경제화해서는 안 되는 가치들에 대한 존중이 덕 윤리의 핵심이라면 안전의 문제는 그 중 하나일 것이다. 말하자면 안전성은 건강한 삶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경제적 고려를 넘어서 존재해야 하는 가치로 간주될 수 있다. 경제화하지 않는다는 것은 비용이 과하게 지불된다고 하더라도 안전성을 해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그런데 몬산토는 비전을 통해 “농업을 개선하여 최종 소비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한다”고 밝힘으로<sup>15)</sup> 자사의 비전이 단순히 경제적 이득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다. 몬산토가 얘기하는 삶의 질 개선이 최종 소비자의 정말 건강한 식이, 더 나은 교육 기회, 더 튼튼한 지역 경제 부흥을 포함한다면 자사의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정보를 공개한 뒤 협력을 통해 위험성을 제거해 나가는 행동양식을 취해야 할 것이다.

이는 좀 더 넓은 시각에서의 동종 및 관련업계와 유관기관의 윤리적 기준들과도 합치한다. 예를 들면, 농업기구 중 가장 대표적인 FAO(Food and

15) 몬산토 코리아 홈페이지, “몬산토의 약속”, “지속가능한 농업 - 삶의 질 개선” 참조  
(<http://www.monsanto.com/global/kr/ourcommitments/pages/default.aspx>).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의 비전이나 윤리강령에서 기업이 궁극적으로 가져야 할 4가지 비전은 인류의 생활 및 영양수준의 개선, 식량 생산 및 분배 효율성 개선, 농촌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 세계 경제발전과 인류 기아퇴치에 기여이다. 이에 따라서 몬산토는 농업 생산력을 극대화하는 노력을 계속하면서도 인류의 생활과 영양수준을 위해 자사 상품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후 책임과 정보 공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 IV. CSR 활동을 통한 몬산토의 극복 노력

##### 4.1 인도에서 발생한 비윤리 경영사례 CSR 활동을 통한 극복 노력

상기 제시된 비윤리 경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몬산토는 인도에서 CSR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몬산토는 CSR 활동 홍보를 위해 ‘농업인들과 직원들 및 지역사회의 삶의 질 향상’, ‘균형 잡힌 식사를 모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식량 생산’, ‘지구의 자원 보전 및 자연환경 보호’ 세 가지를 골자로 지속가능보고서(Sustainability Report)를 2008년부터 매해 5월경 제공한다. 과거 비윤리적 경영문제로 거센 비판을 받았던 인도에서의 몬산토의 CSR 활동 내용은 지속가능보고서에 매해 빠지지 않고 등장하고 있다. 2009년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인도의 몬산토 펀드는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아동 노동을 없애며 문맹을 개선하고 식량 안전 보장을 개선하는 사업에 후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지난 6년간, 인도에서의 각종 CSR 활동들은 인도 몬산토가 각종 사회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여를 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 4.1.1 지역사회 발전

몬산토의 인도 CSR활동 관련 사례를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제공된 지속가능보고서를 통해 살펴보면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는 점을 찾을 수 있다. 몬산토는 2009년 인도영농전문가협회 ISAP(Indian Society of Agribusiness Professionals)와 파트너십을 맺고 현대식 농업을 통해 면화와 옥수수 작물 수확량을 증대시켜 농부의 소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 웨어(Sustainable Harvest : Agriculture, Resources, Environment)를 시작했다.<sup>16)</sup> 프로젝트는 해마다 2000번이 넘는 교육행사에서 파종, 토양 건강관리, 작물 영양 관리, 물 절약 관개법, 해충 관리 교육을 실시한다. 처음 16,000명의 소농을 대상으로 시작해 2014년 기준 1,000개 마을에서 10만 명 이상의 농부가 혜택을 받아 면화 농부들은 36%, 옥수수 농부들은 59%의 소득증대를 이뤘다.

농부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도 관개, 재활용 교육을 실시했는데 관수 시설(Irrigation system)에서 식물의 뿌리에 물을 직접 관수하는 점적관수(Drip irrigation) 기법을 도입해 기존의 흐르는 관개 시스템에 비해 2배가 넘는 95%의 물 적용 효율성을 제공했다. 이러한 시스템에 연계해 몬산토는 회사-농부 연계 전화인 MFAS(Monsanto Farm Advisory Service)를 도입해 농민들이 자사 농업 고문과 통화할 수 있는 무료 전화번호를 연중무휴 사용해 현재 270만 명이 회원 등록해있고 이용 농부의 90%가 매우 만족했다는 지표를 보고하고 있다. 이는 2011년 지속가능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16) 몬산토 공식 홈페이지의 "Project Share" 참고. <http://www.monsanto.com/improvingagriculture/pages/project-share.aspx>.

또한 2010년 출판한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몬산토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인도 지역사회 교육을 위해 앞서고 있다. 몬산토는 2009년부터 종자 연구로 유명한 두 학자의 이름을 딴 비첼-볼락 국제장학 프로그램(Beachell-Borlaug International Scholars Program)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과학자들을 미국 텍사스 농업생명 연구소(Texas Agrilife Research Center)로 초청해 현장연구가 가능하도록 돕는다. 현재까지 몬산토가 후원한 45명의 과학자 중 20명 이상이 인도 박사과정 학생이었고, 이들은 자국으로 돌아가 쌀, 밀 수확량 증대 등 자국 농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몬산토는 덕분에 2013년 미국 농업 장학금 분야를 관리하는 FFA(Future Farmers of America) Convention에서 최고 스폰서십에 선정되었다

#### 4.1.2 인권 문제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기반을 둔 뿌리 깊은 인권 문제는 몬산토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다. 2014년 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몬산토는 국제사회에까지 악명이 높은 인도 여성 인권문제가 결국 그들의 미약한 경제적 기반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해 인권 사업에 착수했다. 프로젝트 AASHA(인도어로 희망을 의미)를 시작해 몬산토 인디아 여성 직원들에게 위생 및 식품관리, 조리 안전성 등 여성 건강, 교육, 안전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나아가 상기 서술한 지역사회 발전 프로젝트를 웨어를 여성노동문제와 연계해 330개의 여성자립조합에 현대적 농업 기술을 전수해 여성 인권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동일한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몬산토는 인도의 심각한 아동 노동 문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08년 월트디즈니가 제작한 영화 <Sadugudu>는 아동 노동이 빈번한 구디아탐(Gudiyatham) 지역에서 학대와 연계되는 노동을

세상에 고발해 호평을 받았다. 영화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인도에서는 매년 15-20만명의 아동들이 노동자 시장에서 단돈 5만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다. 몬산토는 이러한 아동 노동을 반대하기 위해 2010년 CCP(Child Care Program)을 설립했다. 회사 임직원들은 달마다 의무적으로 모여 NGO, 다국적 종자기업과 협력해 아동 노동을 제거하고 이들을 학교로 보내려는 노력을 실시한다. 또한 몬산토는 일터에만 있던 아이들이 빠르게 공교육에 적응할 수 있는 가교역할학교(Bridge school)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사회 모바일라이저(Social Mobilizer) 프로그램을 실시해 지역 사회의 아동 노동을 찾아낼 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학교 기관, 지역 사회에 아동 노동 반대를 규탄하는 모임을 만들었다.

몬산토의 노력에 대한 인정으로 2011년 인도 아동 노동 전문가 달불리 벤카테스와루(Davuluri Venkateswarlu)가 “여러 이해관계자와 통합해 혁신적인 성과를 만들어낸 몬산토 CCP가 인도 아동 노동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라고 평한바 있다. 동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지표로 살펴보았을 때 아동 노동 비율이 면화 산업에서 2006년 4.9%에서 12년 0.2%, 채소 산업에서 2009년 0.8%에서 12년 0.1%로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 4.1.3 인도농민 자살연관 이미지 제고 노력

다수의 인도 농민들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여론 또한 인도 농업인 자살을 BT면화와 GM작물의 위험성 때문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몬산토는 인도 농민의 자살은 BT면화로 대표되는 GM작물이 도입된 2002년보다 훨씬 전인 1980년대부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고 반론한다. 이를 위해 몬산토는 지난 1980년대부터의 농업인 자살 관련 연구결과들을 제시했다.

먼저 1975년 설립되어 저소득국가 특히 저소득

층의 식량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국가적 및 국제적 전략을 수립하고 분석하는 국제식량정책연구소(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IFPRI)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농민 자살 현황을 분석해, 해당 원인을 BT 면화로 인한 경제력악화라는 변수보다 정부 농업지원 약화로 인한 자금 사정 악화 상황에서 제 1금융권의 부채로 인한 고리대금업의 횡행을 이유로 제시했다. 또한 농업과정 자체에서 경작 방식의 변화, 제초제에 대한 식물과 해충의 저항성, 농지에 파종된 작물의 변동 등 몬산토가 제어할 수 없는 부분도 자살의 원인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Smale et al., 2008).<sup>17)</sup>

이에 더해, IFPRI의 후속연구(Gruère and Sun, 2012)<sup>18)</sup>에 따르면 인도의 면화 수확량 증가에 대한 BT 면화 채택의 기여도 측정에서도 도리어 BT 면화 채택 후 면화 수확량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며 채택의 정당성을 지지한다. 또한 1962년에 설립되어 사회문제 해결에 힘쓴 인도 사회개발위원회(Indian Council for Social Development, ICSD)는 인도 BT 면화의 사회 경제적 영향 평가에서 농부 자살의 주요 원인으로 BT면화가 아닌 용자 이용 불가, 면화 가격 변동, 관개시설 부족 등을 뽑았다(Kiresur and Ichangi, 2011). 오히려 연구에 따르면 BT 면화를 도입한 농부의 86%가 비 BT 면화보다 BT 면화 종자로 높은 수확량과 수익을 보고했고 99%는 BT 면화가 목화다래벌레 공격을 상당히 감소시켰다고 주장하여 BT면화의 우수성을 입증했다. 인도 몬산토는 이러한 BT면화 품질관리를 위해 ‘청지기 프로그램 ETS(Excellence Through Stewardship)’

을 통해 자사 임직원이 아닌 인도 관료나 농민 같은 제3자에게 제품 품질관리를 위임해 신뢰를 더하고 있다.

1970년에 뭄바이에서 설립된 인도 최대 시장조사 전문회사 IMRBI(Indian Market Research Bureau International)의 2006년 인도농민 설문치에 따르면 일반 면화에 비해 BT면화 재배농민의 수확량은 64%, 이익은 118% 증가했고 농약 비용은 2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IMRBI, 2006). 또한 BT면화 수익 증가에 따라 농민 85%가 자식교육에 더 투자했고 80%가 식생활 증진으로 가족 구성원 건강이 좋아졌다고 밝혔다. 몬산토는 이러한 연구결과는 인도 농부의 자살과 BT 면화 재배 간에 연관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한다.<sup>19)</sup>

또한 몬산토는 면화뿐만 아니라 인도 전역에 디칼브(Dekalb) 옥수수 하이브리드 종자를 무료거나 매우 저렴하게 제공하고 이에 관련된 종자, 비료, 작물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례로 가뭄이 잦은 구자라트(Gujarat) 지방에서도 농지 수확이 가능해 3년간 3000억 이상의 추가소득을 얻는데 기여했다고 한다. 이렇게 2009년-2014년까지 제공된 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몬산토는 이미지 제고를 위해 인도 각계각층을 아우르며 노력을 하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 4.2 남미 지역에서의 CSR 활동

상기 제시된 남미 지역에서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몬산토는 전방위적 CSR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몬산토는 기업 순위 조사 관련

17) The economic impact of transgenic crops in developing countries  
<http://ebrary.ifpri.org/cdm/singleitem/collection/p15738coll5/id/882/rec/6>.  
 18) Measuring the contribution of BT cotton adoption to India's cotton yields leap. Page 1. IFPRI Discussion Paper 01170 2012.4.  
 19) Is Bt or GMO Cotton the Reason for Indian Farmer Suicides,  
<http://www.monsanto.com/newsviews/pages/india-farmer-suicides.aspx>.

단체 GPW(Great place to work)가 다국적 기업들 중 기업문화 상위 25개를 선정하는 조사에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매해 10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순위의 선정 기준은 전체 임직원이 최소 5,500명 이상이며 40% 이상이 해외에서 근무하고 적어도 5개 이상의 국가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곳으로 뽑힌 다국적 기업 중 정책과 관행 및 직원의 의견이 얼마나 인정되는지를 측정하는 것이다. 2013년 몬산토는 인도, 중앙아메리카,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의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선정된 나라를 살펴보면 비윤리 경영이 화두가 되었던 아르헨티나를 포함해 중남미 지역이 대거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몬산토는 아르헨티나 일하기 좋은 기업 순위에서 2011년 중간기업(250-1000명) 중 3위였다가 2012년부터는 대기업(1000+)으로 올라가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몬산토가 실시하고 있는 CSR활동이 기업 이미지에 정(正)의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지표이다.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몬산토는 아르헨티나 토양 환경에 맞는 생물공학 씨앗을 발명했고 무경운 경작(no-till farming)을 가능하게 했다. 흙덩이를 잘게 부수며 지표면을 평평하게 하는 경운 작업을 생략하고 좁은 골을 파서 씨앗을 심는 이 방식을 통해 토양에 유기물이 증가되며 관개에 필요한 물의 양이 줄어 안정적 수확이 확산되었다. Phillips(2014)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총 재배면적의 15%에 달하는 2370만 헥타르 가량이 이 방식을 도입해 탄소배출을 50%이상 감소시켰고 토양관리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였다.

또한 2014년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몬산토는 아르헨티나에 선진 기업문화를 도입하기 위해 전체 직원들을 위한 기숙사를 제공하고 의료서비스를 도입했으며 지역사회와 연계해 소방시설, 헤비타트 등 직원 봉사활동도 활발히 진행해 이미지 제고를 노리고 있다. 비교적 고등교육이 적은 아르헨티나 농촌

16개의 지방에서는 '미래를 위한 파종상'(Seedbed of Future) 기금을 설립해 48000명 이상 젊은이들의 교육과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묘상에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빈곤의 순환을 막기 위한 노력을 행한다.

몬산토는 아르헨티나를 넘어 남미 지역에서 몬산토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행하고 있다. 그들은 2010년 1월 아이티(Haiti)를 강타한 대규모 지진 참사 피해 복구 지원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재난 직후 25만 달러 이상을 기부했다. 이에 더해 Bell에 따르면 미국 국제 개발처(United State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USAID)와 협력한 종자 분배 프로그램 워너(Winner) 프로젝트를 통해 10년 동안 500만톤 이상 4백만 달러가 넘는 옥수수 종자와 양배추, 당근, 가지, 멜론, 양파, 토마토, 시금치, 수박 등과 같은 채소 종자를 기부하기로 서약했다(Common Dreams, 2011). 또한 2011년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몬산토는 남미 지역에서 '생산성 향상을 통해 5년 내에 농업 소득을 2배로 증가시키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종자 기부뿐만 아니라 작물 관리를 위해 필요한 비료 등 농업생산요소와 기술 서비스 및 농업 분야의 전문성을 향상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CSR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V. 결론

본 연구는 다국적기업인 몬산토의 과거 부정적 여론의 대상이었던 인도 농민 자살 사건과 남미 유전자 조작 농산물 사례를 담고 있다. 본 사례는 몬산토에서 발생했던, 과거의 비윤리적 행태를 기업윤리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해 봄으로써, 윤리경영의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주목적이 있다. 최근 들어, 몬산토는 과거 비윤리경영 이미지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 각지

에서 여러 CSR 활동을 진행 중이다. 이 활동은 직접적으로는 인도나 아르헨티나를 포함한 남미 지역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기업활동을 통해 전 인류의 번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몬산토는 일차적으로 '세계적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수자원 부족과 인류식량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2015년 하버드 비즈니스 저널이 뽑은 세계 100대 최고 경영자 명단(올해부터 기존 평가기준이던 시가총액, 주주 수익률뿐만 아니라 환경 및 사회 기여도, 지배구조, 지도력까지 측정하기 시작) 중 66위에 오른 몬산토의 CEO 휴 그랜트(Hugh Grant)는 2010년 뉴욕에서 열린 BSR(Business for Social Responsibility) 컨퍼런스 연설에서 혁신, 통합, 영감 3I(Innovation, Integration, Inspiration)을 통해 인류 식량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선언했다. 연설의 주 내용은 40년 후인 2050년에 인구는 100억 명에 육박할 것이고 지구의 한정된 자원으로 보다 많은 식량과 연료, 섬유를 생산하기 위해 아직까지 덜 개발된 지역인, '아프리카'의 식량문제 해결에 눈을 돌리겠다는 것이다.

UN 식량 농업 기구 FAO(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이 발표한 세계 물 사용 현황을 다루는 아쿠아스탯(Aquastat)에 따르면 세계 물 자원의 70%가 관개로 쓰인다고 한다. 몬산토는 현재 담수의 95% 가량을 농업에 사용하는 아프리카의 상황을 인지하고 궁극적으로 가뭄저항성 곡물 유전자 기술을 농업 물 부족 문제와 연계해 기술 발전과 환경 보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 '가뭄 저항성 옥수수'(Water Efficient Maize) 종자와 기술 노하우를 모두 무상으로 기부해 단위당 옥수수 생산성

을 2배 이상 증진시키고 있다.<sup>20)</sup>

이러한 노력을 통해 2013년부터 기업규모로 전 세계 700위 정도인 몬산토는 기업윤리 측면에서 가장 권위 있는 CR(Corporate Responsibility) 매거진 선정 100대 CSR 기업에 들기 시작했고 2014년에는 38위, 2015년에는 총 41위에 올랐다.<sup>21)</sup>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20위, 기후 변화 분야에서는 3위, 인권 분야에서 9위에 올라 그들이 말하고 원하는 '윤리적인 기업에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미국 최대의 인권 조직인 HRCF(The Human Rights Campaign Foundation)가 매기는 CEI(Corporate Equality Index)에서 만점을 받으며 시민 평등을 잘 지키는 윤리적 기업으로 평가된 것도 의미를 가질 것이다.

2014년 지속가능 보고서에 따르면 몬산토는 미래 CSR의 목표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모토로 삼고 관련 활동에 정진하고 있다. 현재 70억 명인 세계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지구 온난화 및 자연 자원 감소로 전 세계의 주식인 쌀과 밀의 생산성이 정체된 상태다. 이에 따라 몬산토는 작물 재배에 필요한 주요 투입 자원의 양을 2030년까지 현재의 1/3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종자를 개발하고 있으며 다른 기업 및 단체들과 협력하여 인도, 아르헨티나 등 주요 농업 지역에서 수질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2020년까지 자원이 부족한 아프리카 지역의 500만 농민을 포함한 전체 농민의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해 1000만 달러, 공공부문 쌀과 밀의 수확량 증대할 수 있는 연구자원을 위해 1000만 달러를 투자하고 2030년까지 옥수수, 콩, 면화 등 3개 주요 작물 수확량을 2030년까지 2000년 대비 2배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CSR 활동은 단기

20) Monsanto 공식 홈페이지 'WEMA(Water Efficient Maiza for Africa) Project'참조.

21) CR's 100 Best Corporate Citizens 2015 참고하여 확인 할 수 있다.

<http://www.thecro.com/files/100%20Best%20List%202015>.

적으로 부담 비용의 증가가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기업 이미지의 제고와 기업가치의 증가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 마이클 샌델(2010), **정의란 무엇인가**, 이창신 (역), 서울, 김영사.
- 이형준·서영진(2004), **기업의 사회적책임이란 무엇인가**, 한국경영자총협회 부설 노동경제연구원, 연구총서.
- 임마누엘 칸트(2005), **윤리형이상학**, 백종현 (역), 서울, 아카넷.
- 천미림·김창수(2011), "CSR 의 지속성이 CSR 과 재무성과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29(3), 351-374.
- 한스 요나스(1994), **책임의 원칙: 기술시대의 생태학적 윤리**, 이진우 (역), 서울, 서광사
- Bell, B.(2011), "Monsanto in Haiti." Common Dreams, Available at: <http://www.commondreams.org/views/2011/06/28/monsanto-haiti>.
- Butler, D. (2012), "Hyped GM maize study faces growing scrutiny," *Nature* 490 (7419), 158.
- Carroll, A.(1991),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July-August 1991, 39-48
- Democracy Now(2006.12.3.), "Vandana Shiva on farmer suicides," Public Broadcasting Service / Pacifica Radio. Available at: [http://www.democracynow.org/2006/12/13/vandana\\_shiva\\_on\\_farmer\\_suicides](http://www.democracynow.org/2006/12/13/vandana_shiva_on_farmer_suicides)
- Gruère, G.(2008), "BT cotton and farmer suicide in india,"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Gruère, G., and Y. Sun(2012), "Measuring the contribution of BT cotton adoption to India's cotton yields leap," IFPRI(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 Gucciaridi, A.(2012.4.4.), "Monsanto's GMO seeds contributing to farmer suicides every 30 minutes," Natural Society. Available at: <http://naturalsociety.com/monsantos-gmo-seeds-farmer-suicides-every-30-minutes/#ixzz3y961P4dr>.
- Harris, P.(2013), Monsanto sued small farmers to protect seed patents, report says. The Guardian, February12.
- Kathage, J., and M. Qaim(2012), "Economic impacts and impact dynamics of Bt (Bacillus thuringiensis) cotton in India," PNA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 Kiresur, V., and M. Ichangi(2011), Socio-economic impact of BT cotton - a case study of Karnataka. *Agricultural Economics Research Review*, 24(January-June), 67-81.
- Majumdar, B.(2006), "Imaging contention at globalized localities: BT cotton in India," Working paper, Rutgers University.
- McWilliams, A., and Siegel, D. (2000).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21 (5), 603-609.
- Monsanto Co.(2000-2015), Annual Reports.
- Monsanto Co.(2000-2015), Sustainability and Corporate Responsibility Reports.
- Nelling, E., and E. Webb(2009),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financial performance: the "virtuous circle," revisited. *Review of Quantitative Finance and Accounting*, 32 (2), 197-209.
- Organic Consumer Association(OCA)(2008.2.13.), Monsanto's false advertising in India. Available at: [http://www.organicconsumers.org/articles/article\\_10222.cfm](http://www.organicconsumers.org/articles/article_10222.cfm).

- Paganelli, A., V. Gnazzo, H. Acosta, S. López, and A. Carrasco(2010), Glyphosate-based herbicides produce Teratogenic effects on Vertebrates by impairing radionic acid signaling, *Chemical Research in Toxicology* 23 (10), 1586 - 1595.
- Phillips, L.(2014.7.4.), "Doing the tango with no-till in Argentina," *Farmer's Weekly*. Available at: <http://www.farmersweekly.co.za/article.aspx?id=59807&h=Doing-the-tango-with-no-till-in-Argentina>.
- Pisarenko N.(2013.10.21.), "Potential effects of agro-chemicals in Argentina," Available at: [http://www.boston.com/bigpicture/2013/10/agrochemical\\_spraying\\_in\\_argen.html](http://www.boston.com/bigpicture/2013/10/agrochemical_spraying_in_argen.html)
- Porter, M., and M. Kramer(2006), The link between competitive advantage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arvard Business Review*. 84(12) : 78-2
- Public Broadcasting Service(PBS)(2007.8.28.), The Dying Fields.
- Reuters(2013.10.1.), "Monsanto seed plant construction halted in Argentina," Available at: <http://www.reuters.com/article/us-argentina-corn-monsanto-idUSBRE99018I20131001>.
- Robin, M.(2010), *Le Monde selon Monsanto: de la dioxine aux OGM, une multinationale qui vous veut du bien*. La découverte. (printed in spanish)
- Samiti, V.(2011), Sharad Pawar's Big Success Story of Bt.cotton is Untrue and Contradicts of Govt. Data.
- Samsel, A., and S. Seneff(2013), "Glyphosate, pathways to modern diseases II: Celiac sprue and gluten intolerance," *Interdisciplinary Toxicology*. 6(4), 159-184.
- Smale, M., P. Zambrano., J. Falck-Zepeda., G. Gruere., and I. Matuschke(2008), "The economic impact of transgenic crops in developing countries: a note on the methods," *International Journal Of Biotechnology*, 6(10), 519-551.
- Wright, P. and S. 1997. "Agency conflict and corporate strategy : the effect of divestment on corporate value",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8, pp.77-83.
- Zhang, L., D. Hou, X. Chen, D. Li, L. Zhu, Y. Zhang, and Y. Yin(2012), "Exogenous plant MIR168a specifically targets mammalian LDLRAP1: evidence of cross-kingdom regulation by micro-RNA," *Cell Research*, 22 (1), 107-126.
- Zhang, Y., B. Wiggins, C. Lawrence, J. Petrick, S. Ivashuta, and G. Heck(2012), "Analysis of plant-derived miRNAs in animal small RNA data sets," *Bio Medical Central Genomics*, 13(1), 381.

## Analyses on Monsanto's Business Ethics Issues and Practic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Ho-Young Lee\* · DongHyun Kim\*\* · GeeChan Lee\*\*\* · Dae Seong Jeong\*\*\*\*

### Abstract

Monsanto is a leading multinational corporation where its vision is set to increase productivity and enable sustainable agriculture for the future demographic increase by utilizing the company's agricultural solution products. Monsanto has achieved a great managerial success through fast innovation, research and development and its flexibility. Also, they have involved in variou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ctivities such as providing scholarships, granting research funds for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upporting water resource conservation, among many others.

However, on the opposite side of its success story, Monsanto has exposed to the general public through a series of negative media coverages on some management strategies performed in several countries including India and Argentina. For example, their chemical products such as PCB and Agent Orange have caused environmental pollution and deteriorated welfare of human being. Monsanto has also been exposed to media coverages because of violation of GMO safety and fake advertising, etc. At the same time, Monsanto has exerted much effort to recover their reputation as a global company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ctivities, contributing their resources to society through creating jobs and conducting various CSR activities.

In this case study, we analyze Monsanto's business practices conducted in India and Argentina from the perspectives of theories in business ethics and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particular, we analyze two Monsanto's business practices using prescriptive theories and the four stages of social responsibility. This study provides useful insights to various interested

---

\*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 School of Law, Yonsei University

\*\*\* School of Business, Yonsei University

\*\*\*\* Institute of Language and Information Studies, Yonsei University

parties surrounding a corporation and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understanding continuous monitoring and cooperation between companies and interested parties to ensure substantiality and human wellbeing.

Key Words: Monsanto, business ethics,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